

스피노자 철학 개념, 코나투스,
능동체 공동체로 『토지』 읽기

이
덕
화

역락



이 책 발간까지의 필자의 연구 발자취

이 책을 발간하면서 그동안 필자의 연구 역사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석사학위논문 「원형 비평을 통한 채만식의 『탁류』 분석」을 끝으로 휴지기로 들어갔다. 그 당시 재직하고 계셨던 박두진 교수가 여성들은 박사과정에 입학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 가장으로 살아야 하는 남성들의 직장을 뺏는다는 이유였다. 그 당시는 교수들의 말은 법이었다.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때는 그 당시 초등학생 두 명을 둔 주부였다. 학교 수업 외에 저녁에 다양한 스터디까지 하면서 공부하기가 벅찼다. 석사 때 혼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책이나 논문을 찾아 읽고 쓰던 때와는 달랐다. 연구 대상도 신소설,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채만식 등의 작가들에서 북한 작가, 혹은 탈북 작가들의 연구가 태동하는 시기였다. 탈북 작가들의 작품이 금서(禁書)에서 해제된 것이다. 사회주의 이론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회주의 창작방법론, 공산주의 역사를 차례대로 공부하고, 이기영, 김남천, 임화, 한설야 등의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다. 읽을 텍스트가 많아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저녁마다 다양한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다. 학교 수업보다 스터디 그룹 교재 읽기가 더 힘들고 어려웠다. 돌아가면서 2,30년대 자료를 찾아와 강독을 했다. 그 당시, 인쇄 기술이 열악, 대체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글들의 복사본은 글자가 뭉그러져 있었다. 혼자서 읽기 힘든 텍스트를 필자보다 10년이나 어린, 피가 끓는, 박사과정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

에 참여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문학사는 눈을 가린 채, 이광수나 김동인, 김동리 또 다시 채만식을 이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경찰에서 우리 집을 수색하는 일까지 있었다. 새벽 6시에 경비실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경찰이 집집마다 책 수색할 것이라는. 그때 필자하고는 무관한 말로 흘러들었다. 위험하다 생각하는 책은 대충 베란다로 옮겼다. 책 수색은 무사하게 넘어갔다.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루 종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책을 구입한 학생들보다 필자가 나이가 좀 있으니 자본론 판매책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담당 경찰관은 조서 작성이 끝나도 사건을 어떻게 종결시켜야 할지 몰랐다. 윗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째가 되는 날 결국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지만 시대가 만들어낸 황당한 사건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고난한 세월이었다. 아이들은 한참 말썽을 피울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그것도 둘 다 남자였다. 박사과정 수업에, 논문 준비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에 강의까지 병행했다. 그 당시 남편들은 12시에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때였다. 컴퓨터도 처음 삼보 컴퓨터가 나올 때였다. 내용을 옮기면 주석이 따라오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쓴 내용이 모두 사라져버리거나, 고장이 날 때마다 무거운 컴퓨터 본체를 들고 삼보 컴퓨터 회사에 택시를 타고 가 고치던 생각, 논문을 끝내고 후배가 밤을 새면서 필자의 집에서 주석을 가위로 잘라 옮겨주던 생각, 스티디를 끝내고 늦은 밤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득했던 생각들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문득 난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어렵다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관한 논문,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으로 「김남천 연구」를 박사과정 입학한 지 3년 반 만에 학위

를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월북 작가 겸 평론가, 카프의 일인자나 다름없는 ‘김남천’ 연구였다. 통일원, 국회 도서관 등 무수한 자료를 찾아다녔다. 그 당시 논문을 심사하신 이선영, 김용직, 신동욱 교수들의 의외의 호뜻한 표정에 자신감이 생겼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에 대표 논문으로 실렸다. 학위 논문에 별 관심이 없던 그 당시 유명한 여성지 『우먼 센스』에서까지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여성 우수논문자를 선정해달라고 전화했더니 필자의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 난 논문이 우수한 논문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었다. 힘든 공부를 끝내고 학위를 받았다는 데만 의미를 두었다. 바로 전임 강사로 채용되었다. 그 이후 학술재단이 생기면서 학회에 참석할 일이 많이 생겼다. 몇 년 뒤 학회에서 만난 지방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자신들이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필자 논문을 한 장씩 읽으며 스터디하며 카프 문학을 공부했다고, 너무 반가워했다. 또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 강의하러 나온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강사를 복도에서 만나자 김남천을 쓴 이덕화 교수가 맞느냐고 했다. 그렇다고 했더니, 논문을 그렇게 잘 쓰시고 왜 이렇게 숨어 있냐고 했다. 그 말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박사학위논문을 쓴 이후 방향을 바꿔 페미니즘 쪽의 논문을 쓰다 보니 남자들은 필자의 활동을 몰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어느 학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 차를 얻어 탄 경희대 교수는 필자가 쓴 박사학위논문이 책으로 나왔을 때, 교수 중에 한 명이 논문은 이렇게 써야 한다며 필자의 「김남천 연구」를 엄청 칭찬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 년간은 공부라는 것을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대학 강의와 잡지에 써달라는 몇몇 원고 외에는 일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다 그동안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남성 연구자들에게만 맡겼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여성 작가들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남성 연구자들은 몇몇 여성 작가를 제외하고는 여성 작가 연구 자체를 안 했다.

연세대 박사과정에 있는 7-8명과 이화여대 박사과정에 있는 3-4명을 합쳐 페미니즘 연구팀을 만들었다. 이상진(현 방통대교수), 변신원(현 양성평등연구원 교수), 김미현(현 이화여대교수, 작고), 김복순(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주(현 한양대학교 교수), 송인화(현 한성대학교 교수), 홍혜원(현 충북대학교 교수), 권명아(현 동아대학교 교수), 백문임(현 연세대학교 교수), 김현주(현 연세대학교 교수) 등 1920년대,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을 시작으로 여성 작가들을 여성 시각으로 연구 하자는 결의로 5년 이상 연구와 발표를 하면서 그 결실로 세 권의 책을 한길사에서 발간했다.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현대편),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이다.

이 모임이 발기인이 되어 ‘한국여성문학학회’가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필자가 맡게 되었다. 지금 현재 20년이 지나 대부분의 우수 여성 연구자들이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술재단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학회로 자기매김했다. 그런 와중에 대하소설, 『토지』와 『혼불』이 2년 차이로 출판되었다. 『혼불』을 출간한 한길사 김언호 대표가 페미니즘 책을 낸 우리 팀에게 『혼불』 연구를 5차례 걸쳐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연구자들은 어차피 읽어야 할 책이니 김언호 대표의 부탁에 응답, 다섯 번에 걸쳐 『혼불』 세미나를 개최했다.

페미니즘 여성 연구 때 맡은 박경리 연구와 『혼불』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모아 두 작가의 다른 작품을 모두 비교 연구한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라는 제하에 책을 출간했다. 그 책으로 인해 ‘혼불학술상’(제2회, 2002)을 타게 되었다. 그 이후 박경리나 최명희 연구를 떠나, 나혜석, 김명순, 염상섭, 한무숙, 박화성, 한말숙, 공선옥 등 해외 교포작가 이양지,

차학경, 나혜석과 영국 신여성 조지 엘리엇 비교연구 등 다양한 작가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예림기획, 2005), 『한말숙 작품에 나타난 타자윤리학』(소명출판, 2012), 『‘너’ 속의 ‘나’, ‘나’ 속의 ‘너’, 타자 찾기』(글누림, 2013), 『아시아적 신체와 혼종적 정체성』(소명출판, 2016), 『일제 하 작가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문학적 대응』(소명출판, 2021) 외 몇 권의 공저가 있다.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토지학회’와 ‘비평숲’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학회’는 박경리 『토지』를 연구하는 학회로 이제 10년 가까이 된 얼마 되지 않은 학회이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토지』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 출판하면서 학회로 발전한 모임이다. 그동안 필자는 다양한 연구에 관여하면서 박경리 작품에만 몰입하지 못했다. 그러다 퇴직을 해 ‘토지학회’에 관여하면서 『토지』를 새롭게 보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다.

어느 가을 토지문화재단에서 학회를 끝내고 연세대 몇몇 교수들과 원주 박경리가 살던 ‘박경리 문학관’을 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 전날 용꿈에서 본 집이 박경리가 살던 원주 집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잠에서 깨어나 용 두 마리가 석가래 아래 혀를 널름거리는 꿈을 생각하고 기분이 묘했다. 그렇게 용꿈을 꿀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박경리와 필자 사이에 그런 일이,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해 연구발표를 위해 『토지』 텍스트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 당시 국문과 교수들, 서정자, 구명숙, 김응교, 함중호, 이미림, 안미영, 황영미, 홍성래, 우현주 등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비평숲’이라는 모임에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던 중이었다. 그런데 『토지』의 후반부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나온 용어, ‘능

동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능동적 공동체' 그 단어 하나로 스피노자를 박경리가 읽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또 그것 하나로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다 박경리의 수필집 『생명의 아픔』에 스피노자가 즐겨 쓰는 용어 '능동'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왔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스피노자와의 연결 짓기가 애매했다. 물론 이것저것 찾는 동안 『토지』의 연구 방향은 '능동적 공동체'라는 단어 하나로 전체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그쪽 연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서희가 간도에서 진주로 귀환한 이후 김길상을 대신하는 최참판댁 관리인, 장연학이 새롭게 눈에 띄었다. 능동적 공동체와 장연학으로 이어지는 고향, 가족, 평사리 공동체, 만주와 민족 공동체, 스피노자의 신의 표현으로서의 인물 분석, 코나투스에 의한 기쁨의 정서와 슬픔의 정서 등 논문을 스피노자의 다양한 개념으로 읽어 나갈 때마다 박경리가 스피노자를 읽었다는 확신이 강화되었다.

결국 박경리가 스피노자와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았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쓴 수필, 『가설을 위한 망상』(나남, 2007)의 「불모의 시기」에서 스피노자를 언급한 글을 찾았다. '유한의 삶을 넘어 무한 속에서 영혼을 풀어놓고 근원과의 만남을 희구하는 능동적 상태야말로 지고지순한 가치로서 아무나 가 갈 수 없는 길이며 일반 중생에게는 피안이다. 이와는 다르게 적잖이 어폐가 있지만 타의에 의한 자유도 있긴 있다. 추방이나 파문 같은 것인데 철저한 소외, 강요당한 고립, 어떠한 것에도 소속할 수 없고 세속과 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혹독한 형벌의 일종이다. 그러나 피동적으로 당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자유를 체득하게 된다면 능동적 창조에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그 같은 처지에서 자유의 길로 간 사람은 많다. 범신론을 주장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유태 교회에서 파문 선고를 받은 후 렌즈 닦는 업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고독한 삶을 이어가면서 그의 철학의 체계를 세웠다.’는 글이었다.

이것은 박경리가 원주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오직 『토지』 집필에만 열중한 것이나,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철학 체계를 세우기 위해 안경 세공 외에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은 스피노자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이로써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토지』의 핵심 주제와 스피노자의 주요 개념의 상호 침투가 가능한 주제를 하나하나 잡아서 논문을 써나갔다. 주로 작품에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능동적 공동체가 『토지』에서 핵심 주제인 가족이나 민족, 고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신의 표현의 하나로 드러난 속성으로서의 인물은 어떻게 스스로를 표현하는가 등 ‘토지학회’에 차근차근 발표해 나갔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비평숲’에서 다양한 철학 텍스트를 읽어 스피노자 해독이 가능했던 덕분이었고 ‘토지학회’에서 따뜻한 배려로 지속적인 발표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두 단체에 고마움을 표한다.

또 역락출판사 이사와 대표가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또 어려운 원고를 읽고 책의 핵심을 짚어준 우찬제 교수와 교정을 맡아 준 김병일과 송명현 님께 더불어 감사드린다.

2023.10.

저자 씀



차례

이 책 발간까지의 필자의 연구 발자취_5

° 제1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능동적 공동체, 박경리의 恨, 고향, 민족

1. 스피노자와 박경리 • 17

- 1) 왜 스피노자인가 ————— 17
- 2) 스피노자와 박경리의 영향 관계 ————— 22
- 3) 『생명의 아픔』 속의 스피노자의 그림자 ————— 32

2. 박경리와 스피노자의 삶 • 39

- 1) 박경리와 스피노자의 삶 ————— 39
- 2) 「환상의 시기」를 통하여 본 박경리의 코나투스 ————— 43
- 3) 스피노자의 삶과 코나투스 ————— 52

3. 신과 각 사물이 만들어내는 관계 생태학 • 59

- 1)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박경리의 恨 ————— 59
- 2) 능동적 공동체와 생명사상 ————— 64
- 3) 신과 각 사물이 만들어내는 관계 생태학 ————— 67

4. 『토지』에 나타난 ‘능동적 공동체’와 『혼불』에 나타난 ‘나’ • 75

- 1) 기쁨과 슬픔의 촉발 장치로서의 ‘코나투스’ ————— 75
- 2) 『토지』와 『혼불』의 현실적 태도 ————— 77
- 3) ‘나’의 근원 찾기와 능동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 81

5. 『토지』 인물들의 코나투스에 의한 존재력 증감 • 91	
1) 스피노자의 신과 박경리의 범신론	91
2) 신의 삶 자체는 표현	95
3) 『토지』 인물의 코나투스에 의한 존재력 증감	98
4) 능동으로서의 코나투스와 존재력의 증감	113
6. 『토지』에서 만주 공간과 능동적 공동체 • 115	
1) 희망의 땅, 만주	115
2) 『토지』에서의 능동적 공동체	118
3) 『토지』에서의 일제 하 만주 지방의 민족적 의미	122
4) 연대의식을 통한 민족 세우기	127
5) 『토지』에서 민족주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132

° 제2부

유기적 생명체, 능동적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고향

1. 김동리의 샤머니즘론과 박경리의 생명의식 • 139	
1) 비교를 위한 전제	139
2) 김동리의 샤머니즘 사상의 배경과 작품	141
3) 박경리의 생명의식과 작품에서의 재현	152

2. 박경리의 작품에서 나타난 근대에서 탈근대까지 • 163	
1) 박경리의 근대적 감수성의 수용	163
2) 폭력적 세계와 자기 소외	167
3) 자본주의와 낭만적 사랑	173
4) 생명사상과 근대	177
5) 국가주의와 탈근대	187
3. 『토지』 가족 서사에서의 확대, 능동적 공동체 • 191	
1) 의식 확대로서의 민족 공동체	191
2) 서사구조와 그 특징	196
3) 가족 서사에서의 장연학의 역할	203
4)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공동체	209
5) 모성포용적 열린 구조	214
4. 『토지』에서 나타난 민족 고향으로서의 평사리 • 219	
1) 『토지』에서 ‘평사리’ 공간에 대한 기존 연구	219
2) 평사리와 하동	222
3) 서희의 정상적 가족에 대한 희구	225
4) 추상적 고향으로부터 ‘평사리’라는 실체	229
5) ‘평사리’와 능동적 공동체	231

4. 『토지』에 나타난 ‘능동적 공동체’와 『혼불』에 나타난 ‘나’

1) 기쁨과 슬픔의 촉발 장치로서의 ‘코나투스’

이 글에서는 『토지』의 서사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서희나 『혼불』의 강실이 스피노자의 개념인 코나투스를 통해서 어떤 인물인가를 보려고 한다.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든가 혹은 슬픔으로 귀착되는 두 작품을 드러내는 장치라든가 작가의식을 비교함으로써 두 작가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코나투스라고 본다. 인간의 감정이 이 본성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본성을 니체는 ‘권력의지’로 들뢰즈는 ‘기관 없는 열차’로 각기 명명, 지칭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 파생된 개념들이다.⁶⁰

60 이수영, 「수동적 정념의 코나투스와 감정의 법칙」, 『스피노자 에타카』, 오월의봄, 2017, 220-245면.

스피노자와 니체는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는 종교에 대항하여, 나름의 성경 해석을 통해 성숙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이후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도를 잇고 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의 카르텔에 짓눌린 인간을 해방시키려 했던 스피노자의 시도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칸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 등에게 영향을 끼친 스피노자는 근대로 향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

스피노자는 강자든 약자든 현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그 누구든 자신의 코나투스(코나투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이런 코나투스는 모두 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강자도 최선의 권력의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약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력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실재하는 것, 즉 이 현실 속에서 그 실존을 부여받은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완전성과 실재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노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재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다.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 ‘혼불’ 의식에서 이야기하는 개체의 존엄성이 활활 불타올라 자신의 혼신을 다하는 것과 같다. 이 욕망이 바로 자기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려는 행위이다. 이것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이고 니체의 ‘권력의지’이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주체적으로 신체와 결합해 자율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본성이면서 실존하는 모든 사물의 현실적 욕망인 코나투스는 여러 외적 원인에 의해 유지되기도 하고 위협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현실적으로 실존하게 되는 순간 코나투스적 존재라고 한

다. 코나투스스는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촉발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기쁨/슬픔이 아니라 코나투스스다. 기쁨과 슬픔은 외부 사물이 우리에게 끼친 효과이지만 코나투스스는 그런 효과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발현이라는 것이다.⁶¹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들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감정은 우리의 신체와 결합했을 때 좋고 나쁨이 발생한다. 좋은 것과 우리의 신체가 합성되었을 때 코나투스스 즉 ‘생명사상’이나 ‘혼불’에서 말하는 생명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감미로운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 편안한 주거 공간, 깊은 통찰력을 담은 책 같은 것들은 생명력을 활발하게 하고 능동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나쁜 것들을 합성했을 때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쁨이며 도덕적으로 악이며 그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며 수동적이게 한다는 것이다.

2) 『토지』와 『혼불』의 현실적 태도

『토지』에서 최참판가의 몰락과 흥망은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매개되어 전개된다. 1, 2부의 인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한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치적 격변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3, 4, 5부에는 서희라는 인물에 의해서 최참판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서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이 만들어내는 인간사가 펼쳐진다. 결국 서희가 길상이와 결혼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으로 서사의 방향이 전환된다. 그에 따라 서희는 간도에서 진주로 오고 독립

61 이수영, 「정신과 신체의 본성에 대하여」, 『에타카, 자유와 긍정의 철학』, 오월의봄, 2013, 240-255면.

군으로 남은 길상의 뒷바라지와 독립군 가족의 뒷바라지를 장연학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돌보는 역할을 함으로써 능동적 공동체로의 민족 세우기로 진입한다.

『토지』의 서회가 평사리에서 간도, 간도에서 진주까지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다양하게 엮히고 풀리는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일본제국주의 초기부터 일제 강압적인 민족 억압의 양상,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분파, 일제하에 새롭게 등장한 신지식인군과 신여성들의 다양한 모습, 초기 근대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상업가들 등,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 일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하의 조선 민족의 사회상과 인간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여준다. 『토지』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 민족이라는 생명체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600명 가까운 인물들의 당시의 구체적인 일상과 의식, 그런 것들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거대한 생명체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 바로 『토지』의 서사의 세계이다.

개체는 저마다 소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도 삶의 법칙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 벌레의 삶 자체는 거대한 코끼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도 차이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세하다 해서 그 벌레가 법칙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총체로서의 개체이며 총체는 개체로서 이루어지고 고리사슬에 엮어진 존재일 것입니다.⁶²

위의 인용문처럼 박경리는 아무리 개인이라고 해도 인간의 삶은 우주의

62 박경리, 「인간탐구」,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사, 1955, 281-282면.

삶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우주와 같아서 아무리 미물 같은 존재라 해도 그 존재는 우주 전체의 시스템과 다름이 없는 유기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토지』는 거대한 우주선과 같이 민족이라는 공동운명체를 태우고 시간의 흐름의 부침을 거둬들인다. 그러면서 각자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행하면서 또 전체 흐름을 따르는 능동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혼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강모와 효원의 결혼, 청암부인의 죽음,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 강모의 만주로의 도피, 또 춘복이로부터 강실이 강간을 당한 후의 임신, 강실이의 매안 이씨로부터 축출, 중간 중간 끼어드는 풍속이나 신화 이야기, 액막이 연 이야기 등, 이 대부분의 이야기는 일본제국주의 하의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다. 최명희가 설정한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민족의 암울한 상황은 단지 민족적인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상징성만을 가질 뿐 구체적인 현실로서의 의미는 없다. 최명희는 그 시기를 단군 신화의 웅녀가 어두운 굴에서 지내야 했던 시기이며 자신이 글쓰기를 계속하던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혼불』에서는 이 시기를 미친개에게 물린 것처럼 인내하면 언젠가는 새로운 광명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 합병하는 어려운 시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인식은 다르다.

『혼불』에서는 인간에게 부여된 천재나 재앙은 인력이 지극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은 별 의미가 없다. 청암 부인이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내가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 말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혼불』의 중요 사건들, 청암부인의 죽음이나 강모의 결혼, 강모의

고독과 외로움, 강실이의 불행, 궁극적으로는 매안 이씨의 멸망이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사회 역사적 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강모나 강실이 등은 수동적인 무기력한 감정에 빠져든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에의 예속을 인정하는 것이고 개인들의 자발적인 자율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큰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런 존재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지나 개인의 능력을 애초부터 박탈당한 존재들이다. 『혼불』의 중요 사건들은 궁극적으로는 매안 이씨의 멸망이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사회 역사적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주제들, 강모, 강실이들이 주요인물에 의한 것이다. 작품 속의 인물들의 슬픔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력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혼식날 시작된 강모의 방황이나 강실과의 근친상간, 보름날 달의 정기를 흡입하려다 춘복이에 의한 강실의 강간당함은 인물의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슬픔이 주는 무지 속에서 맹목적으로 양반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강모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강실이와 대화의 노력조차 않는 것이다. 이처럼 무기력한 수동적인 정념에 휩싸인 채 자신의 삶을 내던지다시피 하는 『혼불』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현실을 향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인물들이라 외부적 힘에 의해 지배되면서 내면적인 힘, 인내밖에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 인내도 운명에 맡기면서 막연한 빛을 기대하는 것이다.

『혼불』에서는 현실 세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임을 전제한다. 내면적 힘에 의한 오직 인내로만 암담한 상황을 견뎌내는 힘을 드러낸다.⁶³ 『혼불』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천재(天災)나 재앙은 인력이 지극하

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은 물론 개인의 의지도 별 의미가 없다. 『혼불』 작가는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려는 서술 태도보다는 작가 의식을 상징적 이미지나 회상적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것이다.

3) '나의 근원 찾기'와 능동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스피노자의 개념인 능동적 공동체를 『토지』와의 관계에서 좀 더 살펴보자. 스피노자는 능동의 경우에는 오직 기쁨의 감정과 그에 따른 능동적인 욕망만 존재한다고 했다. 기쁨에서 생겨난 욕망은 코나투스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 의해 증가된 충족감으로 인해 욕망이 배가된다는 것이다. 서희가 간도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으로 길상이와 일체가 되어 재산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혀를 두를 정도로 용의주도하다. 간도로 탈출 이후 자신의 피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서희가 평사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날 때는 홀로 선 자신의 위기를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서희는 자신의 실존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이웃들과 함께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희라는 홀로 선 개인이 아니라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한 김훈장이나 용이네, 공노인 등을 비롯한 이웃들과 더불어 하는 삶이다. 이것은 서희가 최참판댁을 지켜야겠다는 가문 이상의 또 다른 욕망, 공동체에 대한 염원으로 발전한다.

이에 비해 『혼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 춘복이의 강실이의 강간, 강실이의 축출, 천민 백동이 자신의 아버지 뼈를

63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340-349면.

청암부인의 묘에 투장하는 사건 등, 또 중간 중간 끼어드는 풍속이나 신화 이야기, 액막이 연 이야기, 백제 이야기, 만주 이민 역사 추적하기 등, 대부분의 이야기는 도도한 작가 정신에 의해서 인물들의 삶을 규정하는 객관적 현실과 유리된 채 상징, 언어의 반복, 시각적 이미지인, 자연 제재물이나 사물에의 감정 이입, 모티브의 반복과 불연속적 사건들의 병치 등 ‘순간의 상태성’을 표현하는 수동적 정념에 휩싸인 인물만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 의식에 의해서 『혼불』이 전달하려는 것은 서사적 성격을 초월한 영원의 본질적 고향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작가 의식의 발현이지 작품 속에서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인물로만 드러날 뿐이다.

『혼불』의 강실이처럼 자신의 삶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았음에도 슬픔도 분노도 아무런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기쁨이나 슬픔, 혹은 분노는 외부 사물이나 사건에 의해서 유발된 효과이지만 코나투스(Conatus)는 그런 효과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실이는 전혀 그런 감정의 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종교가 대중들을 죄속에 빠뜨려 놓고 맹목적으로 종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최명희가 『혼불』에서 추적했던 우리 민족의 근원, 힘없고 그래서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근원인 ‘나’일지 모르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맹목적이다.

『토지』의 서희가 자신의 의지대로 현실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인물이라면 강실이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촌인 강모로부터 근친상간을 당할 때나 거명굴 상놈, 춘복에게 강간을 당할 때도 대책 없이 당하는 수동적인 인물이다. 제1권에서 10권까지 열 마디 말도 채 하지 않는 침묵과 인내로 일관하는 인물이다. 대부분의 서술이 하인들의 입을 통해 혹은 옹구네의 수다로 강실이의 근황이 제시된다. 또 강모나 강실이의 의식을 통해서 제시될

뿐이다. 또 역사적 예화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반복해서 강실이의 존재에 대해서 제시한다.

그 애 녹은 자리의 쓰라린 공동(空洞), 이 상실과 상처와 상심이 버린 가슴은 오히려, 해 같고 달 같은 꼭지로 물들어서, 한숨과 눈물의 풀로 한 생애의 이마에 곱게 붙여질 것인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어버린 것의 힘으로 가벼이 되며, 또 비어버린 것의 힘으로 강하게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인가.⁶⁴

위의 인용문은 강실이 수많은 상실과 상실을 통해 비워버린 가슴, 중간에 구멍을 뚫어, 비어버린 힘으로 가벼이 훨훨 하늘을 나는 연(鸞)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연(鸞)의 이미지를 이용,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강실이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높으로 던져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게 한 다음, 새로운 제2의 강실이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서술의도를 통하여 죽음의 지경에 몰아넣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런 강실이와 같은 인물을 수동의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정의를 내린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은 ‘자신에 관한 의식적인 욕구’⁶⁵라고 말할 때 강실이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과 자신의 감정 상태가 혼란스러울 뿐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즉 춘복이와의 신체적 결합이 자신의 신체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단지 인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운명을 기다릴 뿐이다. 어떤 관계에서나 누구에

64 최명희, 『혼불』 제3부 5권, 한길사, 1990, 232면.

65 질 들뢰즈, 박기순 역,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2018, 36면.

게나 당하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강실이의 감정, 인내라는 것이 자신의 객관적 상황판단을 막고 자신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한다. 인내, 고착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념에 사로잡힐수록 정신의 활기는 감소, 무생물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다. ‘인내하면 언젠가…’라는 양반의식은 당위가 되어 복종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놀란 공배네는 강실이를 짐보따리 빼앗듯 잡아챘다.

마치 사람 하나를 찢으려고 돌이서 덤벼드는 아귀들 같았다.

그 바람에 옷고름이 풀어져 버린 강실이가 망연자실, 몸을 뜯기며 당황한 눈빛으로 허공을 움켜잡는다.

나를 놓아 주시오…

강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⁶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거명굴의 천박한 옹구네와 공배네가 자기네들의 상전과 같은 강실이를 서로 갈취를 위해 물건처럼 취급한다. 강실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입속으로만 ‘나를 놓아주시오…’라고 외칠 뿐이다. 위의 인용문은 옹구네가 춘복이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힘을 믿고 강실이를 납치,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위협에 빠뜨리는 장면이다. 자신이 살았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옹구네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강실이는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또 이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오직 인내의 시간만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단지 자신이 춘복이에게 강간을 당해서 춘복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66 최명희, 『혼불』 제5부 10권, 한길사, 1990, 317면.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집안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만을. 혹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뿐이다. 오직 양반 의식에 의한 체면이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방해하고 있다. 그 사건의 원인을 분별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망(코나투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로 인한 노예의 상태에 머무르는 불행한 인물이다.

『토지』에서 윤씨 부인이 죽고 서희는 조준구로부터 모든 재산을 찬탈당하고, 간도로 탈출할 때는 그동안의 기반은 다 잃고 오직 윤씨 할머니가 남기고 간 금괴와 김훈장을 비롯한 자신의 집에서 소작인을 지냈던 용이, 영팔이, 그리고 하인 길상이 등이 옆에 있었을 뿐이었다. 김훈장, 이상현을 빼고는 대부분이 소작인, 하인이었다. 양반인 김훈장과 이상현과도 길상과의 결혼 문제로 다툰 이후 모두 떠나갔다. 서희가 그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은 그들이었다. 길상이, 공노인 등,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민초에 토대를 둔 사람들이었다.

서희가 간도에 와서 그들과의 간극 없는 생활은 길상과의 관계에서도 평사리에 있을 때의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가 많이 희석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간도 대화재 사건으로 간도 전체가 황폐해진 시점의 에피소드를 보자. 서희가 길상이보고 목재를 많이 들여 와 대화재 피해자들에게 목재를 팔아 돈을 벌려는 것을 보고, 길상이 서희에게 ‘불쌍한 사람들 상대로 장사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서희에게 따끔하게 충고할 때는 신분의 간극은 사라진다. 서희와 길상은 처음 다른 배경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차츰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서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길상이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서희는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데서 확인된다.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 그것이 결국 민족으로 이어지며 그들이 같은 생각임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간도에서 서희가 진주로 내려 올 때 길상은 독립운동 진영으로 떠났다. 이것은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며 이루어나가야 하는 능동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서희가 진주로 돌아온 후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독립운동 가족을 돕는 일을 장연학을 통해서 대리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3, 4, 5부의 서사의 중요한 인물로 장연학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민족을 돌보자는 길상과 서희의 민족의식의 반영이다.

서희와 길상이 가족이면서 서로 서로의 자유로운 선택은 두 사람의 공동선에 대한 일치가 가능한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스피노자는 말한다.⁶⁷ 스피노자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어도 자신의 본성과 타인의 본성이 동일하게 발휘되어 서로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 고유의 생명의를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활동이 곧 개개인의 활동이 되고 나의 본성이자 타인의 본성이 되는 상태가 되면 타인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타인의 삶의 되는 경지에 도달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도 실상 그것은 자신만의 온전한 능력의 발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박경리가 말한 유기체 존재론과 일맥상통한 의식이다.

스피노자에게서 ‘개체들의 구성과 활동은 원초적으로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함축’하며 ‘처음부터 모든 개체는 자신의 형태와 실존을 보존

67 이수영, 『에티카, 자유와 긍정의 철학』, 오월의봄, 2013, 338면.

하기 위해 다른 개체를 요구한다.’ 능동의 조건이자 이성의 조건은 홀로 선 개인이나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위해 만남을 조종하는 삶, 공동체적인 삶에 있다는 것. 자유, 그것은 오직 공동체에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이다.⁶⁸

“~ 순진무구,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뼈에 사무치는 한을 느낍니다. 아저씨의 외로움은 늘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잘 웃고 만사를 익살로 넘기던 그분이 왜 그렇게 서러워 보이든지요. 다만 수줍어할 때만 우스웠습니다.”

“.....”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같았고 형님 같았고 친구 같이 임의롭고 언제나 감싸주는 고향 같았습니다...”⁶⁹

위쪽 인용문에서는 스피노자가 개념적으로 설명한 공동체는 아래의 인용문 『토지』의 대화체로 보여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문체만 다를 뿐이다. 아래 인용문은 만주에서 송장환과 홍이의 대화중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주갑이를 회상하며 홍이가 한 말이다. 이 인용문에서 작가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인간에 대한 향수이며 이것은 바로 고향으로 이어지며 민족에 대한 신뢰까지 확대됨을 보여준다. 『토지』에 후반부에 와서는 이웃으로 시작해서 생명공동체로 보는 민족으로까지 확대되며 생명력을 가진 능동적 공동체로 바뀐다.

68 이수영, 「인간의 예측과 자유에 대하여」, 『에티카, 자유와 긍정의 철학』, 오월의봄, 2013, 313면.

69 박경리, 『토지』 5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26-27면.

『토지』에서 동학운동에서 의병 활동, 만주에서의 갖가지의 독립운동이 제시되는 것은 능동적인 역사,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 민족사의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없으므로 다스리는 일은 돈 있고 더 힘 있는 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고루 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라도 버티고 살아남도록 도와야 함을 서희나 장연학을 통해 이루어낸다.⁷⁰

스피노자는 자신의 코나투스(欲)를 유지하기 위한 삶은 바로 자연적인 삶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우리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이 되는 상태 즉 '본성에 있어 일치'하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문학에서 서사시의 시대, 즉 개인의 생각이 공동체 의식과 일치되는 유토피아적 상태이다. 이것은 기쁨은 슬픔과 동일하게 수동으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슬픔에는 없는 기쁨만의 본성이 있으니 바로 완전성의 증가 덕분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박경리는 해방이 된 시점 연합군에 의해서 저절로 얻어진 해방이 아니라 실제 만주를 비롯한 연해주 지방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다 총칼에 쓰러진 독립군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최선을 다해 얻은 독립으로 조명하고 싶은 의지의 발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나무 밑에서 절로 드러누워 입 벌리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민족으로 조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소우주 속에서 각 개체로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목적, 민족 해방이라는 지향점을 향한 욕망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 해방이라는 공동체에 의해 증가

70 이덕화, 「토지, 가족 서사의 확대, 능동적 공동체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3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4, 191면.

된 기쁨이면서 자신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감정이다. 이런 기쁨으로 인해 상호 호의적인 관계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욕망) 이론을 이어받은 니체의 권력의지는 인간의 내부에 여러 욕망들 가운데 수동적인 것들은 고립시키고 무의식 속에서 적극적 힘을 끌어내어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 새로운 생동하는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극복이며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칸트의 코키토에서 능동적 주체는 오로지 수동적 주체의 변용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타자이다. 화자는 무의식적 주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작업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된다.

『토지』의 생명의식과 『혼불』의 ‘혼불’ 의식에서 말하는 생명력은 각 개인의 생명력이 마음껏 펼쳐나가 ‘나’에 대한 사랑이 살아 있는 생명체 전체에 고루 퍼질 때 혼신의 힘을 말한다. 『토지』의 서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으로, 이웃에서 민족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생명체 전체에 대한 연민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혼불』의 효원이나 강실이는 인내를 미덕으로 삼는 양반 의식에 간혀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기 전에 운명의 회오라기에 간혀버리는 인물들이다. 각기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즉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적 욕망을 불사를 때 바로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 남성을 떠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서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남들을 조직하고 자신의 본성에 맞춰 통일시킨다. 그리고 결합 가능한 관계들을 자신의 사업과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 탁월한 경영자였다. 하동의 소작농과 이웃들뿐 아니라 동학군, 민족 독립군의 가족까지 도우며 최참판댁을 초월해 민족 공동체까지 확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다.

반면 강실이는 우연적 만남에 의한 불행에도 그 결과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초래할지 모르는 무능력을 드러낸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강간을 두 번씩이나 당하고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도 모른다. 강실이는 매안 이씨 가문으로부터 축출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실이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어떤 처지에 놓인 줄을 모르는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된 인간으로 전락한다.